

그리고 최근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마침내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미수습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묻혀졌던 진실들이 드러나,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으로 나누신 모든 분들의 공덕에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가족들과 국민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픔을 함께해온 모든 국민의 마음으로 세월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반야용선(般若龍船)으로 승화하고,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의 명호로써 희생자들은 우리의 삶에 지혜의 연꽃으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